

안산시

둔배미놀이

하사(下賜)받은 와상농기(瓦上農旗)

동작리(銅雀里) 두레놀이



둔배미 놀이

1. 전승지

안산시 초지동 둔배미 마을

2. 유래 및 해설

안산은 고려의 덕종, 정종, 문종이 탄생한 곳이라 하여 충렬왕 34년 (1308년)에 군(郡)

으로 승격되었다.

행정구역으로는 잠시 수원부(水原府), 인천부(仁川府)등에 이속된 적도 있었으나 고려·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주로 광주목(廣州牧), 광주부(廣州府)에 속해 왔었다. 광주는 그 관할이 거의 내륙지역으로, 유일하게 바다로 뻗어나간 안산군(安山郡)과 특히 그대·소포구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몫을 해 온 사실이 여러 전적(典



籍)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즉 석곡역(石谷驛)·사옹원분원(司饗院分院)등은 조세·경제·조운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고, 목내성(木乃城), 별망성(別望城), 정왕산(正往山)봉수, 적길리(赤吉里) 봉화대 등은 군사적 요충 구실을 해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안산은 지리적으로 어업과 농업이 병행한 고장이었다. 특히 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중요한 특산물로 꼽혀왔다. 조선조 초기(태조1년:1392년)에 설치된 사옹방(司饗房)이 사옹원(司饗院)으로 개칭된뒤, 안산에는 그 분원(적길리의 사리청)이 들어서서, 이곳 해산물을 궁중으로 바치게 되었다. 기록으로 보면 대하(大蝦), 중하, 백하 등의 새우와 조기, 낙지, 게, 벤댕이, 농어, 준치, 송어, 홍어, 굴, 황합(黃蛤)등을 철마다 서울로 운송해 갔고, 특히 민어의 부래는 아교의 원료로서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리청에서는 적길리에 빙고(氷庫)까지 만들었는데, 그 빙고에 얼음을 대주기 위한 전용 채빙(採氷) 논자리가 지금도 봉환산 옆에 남아 있다.

(안산군읍지,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권148,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둔배미 마을은 초지동 백성산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둔전(屯田) 마을로, 고려 및 조선조시대에는 둔전병이 살고 있었던 데서 둔배미라고 불린 곳이다. 전적에 의하면 안산군(와리면원당리)라 칭했는데 포구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서 원포(元浦), 또는 원당포(元堂浦)라고 불렀다.

안산 고장은 어업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포구마을마다 배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둔배미, 성머리포구(현재의 성포동) 및 와리

쪽의 생산놀이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까지도 그 맥을 이어나왔다. 이러한 어로문화는 군자도의 능길, 수암동, 반월동, 독주골(성포동)의 농요(農謠)와 어우러져 이고장 특유의 노동문화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특히 둔배미의 배치기¹⁾는 원포의 당집에 뿌리를 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와 짝이 되는 농경문화 가운데 능길(군자동 신길리)의 농요는 방아소리와 양산도로 구성된 노동요로서, 현재까지도 옛날 가락과 노래말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둔배미놀이의 중핵을 이룬다. 이 놀이는 어업과 농사라는 두개의 생활근간이 한데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기층민들의 대동축제이며, 그것은 이땅에서 면면히 삶을 영위해 나온 조상들의 땀과 한으로 빚어진 놀이이기도 하다.

■ 장 승

- 원포 당집 길가에는 남북에 장승이 있었으므로 둔배미놀이에서도 성황당 고사때 장승을 세운다. 특히 이곳 장승은 '전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일컫는 관행과는 달리, 남쪽에는 '남방홍제여장군' 북쪽에는 '북방흑제남장군'이라고 쓴다. 장승이 서있던 원래 위치는 초지동 운동장에서 반월공단본부(상공회의소)로 가는 4차선도로 초입이었다.

■ 봉 죽

- 성황당에 당주(堂主:무당)가 있었던 시대에는 고사굿을 지낸 다음, 신들린 당주가 선주나 도사공에게 봉죽을 내렸다. 그래서 그 봉죽은 신성시되고, 또 무술(巫術)적인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봉죽을 받은 선원들은 채수가 있어 풍어·만선을 믿어왔었다. 당주 없이 북

원된 지금의 둔배미놀이에서는, 불가불 선주가 도사공에게 봉축을 내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봉축·깃발 등은 모두 옛날 선원(원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

■ 깃발

- 범(虎神)을 그린 상기(虎旗)는 배의 이물(앞머리)에 꽂고, 소당아씨기와 임장군님은 고물에 꽂는 것이 원칙이다. 백포장은 배의 사방 용총에 두른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성황당 고사(성황제)

어부들이 이번 고기잡이에 아무 사고 없이 만선귀항하게 해주십시오 성황님께 제를 올리는 의식으로, 둔배미 원포(元浦)에 있는 당집이 배치기의 첫 행사장이 된다.

- (1) 선주와 선주부인을 선두로, 어부와 그 아낙들은 떡시루와 음식을 성황당에 차려놓고
- (2) 선주가 제관이 되어, 도사공들 양옆에 선다.
- (3) 선주가 먼저 성황님께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나면
- (4) 도사공은 선원들을 대표해서 성황신께 재배를 드리고
- (5) 선원들과 아낙들은 뒤에서 반절을 올린다.

(6) 도사공은 선주가 내주는 소지를 받아 들고 소제를 올린다.

(7) 선주는 도사공에게 봉축을 건네준다
(원래 당주(堂主)가 있을 때는 선주에게 봉축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8) 사공들은 성황당 산신기와 임장군기·백기를 제각기 받아들이고 배치기 소리와 풍물을 울리며 배로 향한다.

2) 길놀이

(1) 어부들의 배치기, 풍물 행진에 아낙들과 농민들이 화답, 합류해서 배를 향해 길놀이를 벌인다.

(2) 용왕제를 모실 떡시루와 음식에 머리 아낙들이 배옆에 이르러 품을 추고, 선원들은 용왕제를 위한 승선 준비를 한다.

3) 용왕제 및 선상 배치기

(1) 어부들은 들고간 모든 기를 배위에 꽂아놓고 용왕제를 모신다.

(2) 이때에 아낙들은 선상에는 못올라가고, 남편들의 무사고와 만선귀항을 빌며, 배와 바다를 향해 합장배례만 할 뿐이다.

(3) 선원들은 용왕제를 모신 다음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 동리사람들과 아낙들이 보는 데서 선상배치기놀이를 한다.

(4) 이 배치기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이번 행선에서 자기네 배가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아가지고 만선으로 돌아오리라는, 즉 만선귀항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동리 사람들이나 아낙네들도 배치기의 받는 소리를 같이하며 축원을 해준다.

(5) 농민들과 아낙들이 배치기의 받는 소리를 같이하며 축원을 복돋아준다.

4) 어부들의 행선

(1) 어부들은 배치기가 거의 끝날 무렵 그 소리와 장단에 맞추어 노를 젓기 시작하며

(2) 서서히 노젓는 소리로 바뀌면서 바다를 향해 떠나는데, 용왕제를 모셨던 술과 돼지머리 음식은 모두 바다에 뿌리며 행선한다.

(3) 아낙들과 농민들은 배가 멀리 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이별을 한다.

5) 농요(양산도 및 방어소리)

(1) 남편들은 바다로 고기 잡으로 떠났으니 농사일은 아낙네들과 연로하여 고기잡이를 못나가는 노인네들의 몫이 된다.

(2) 여기서 안산지방 고유의 농요(방어소리)가 둔배미놀이의 한쪽 기둥을 이루게 된다.

(3) 이곳 농요가 다른 지방과 특별히 다

른 것은, 처음엔 양산도로 느린 동작을 하다가, 해질 무렵에 방아타령을 부르며 빠른 동작으로 끝을 맺는 점이다.

6) 만선귀항

(1) 바다로 떠났던 남편들이 배에다 만선 오색기를 달고 백포장 둘러치고 풍물을 울리며, 목청높이 배치기소리 흥겨우게 포구를 향하여 들어온다.

(2) 이때가 바로 이 어촌의 대경사이며 축제의 날이 된다.

7) 대동축제

(1) 배치기소리와 풍물소리가 둔배미 포구에 가득차고, 그 흥겨움이 절정을 이룰 때

(2) 아낙들은 기쁨으로 남편을 맞이하며, 동리사람들은 고기를 받기 위해 그릇을 이고 모여든다.

(3) 아낙네들은 배에서 고기를 퍼서 여나르고, 선주부인은 술동이를 이고 나와 선원들에게 바가지로 퍼먹인다.

(4) 고기 나르는 작업이 거의 끝나면, 배에서 내린 선원과 농민들이 배치기소리를 합창하며, 대단원의 춤으로 놀이가 끝난다.

4. 소리와 해설

1) 길놀이

- 고 증 : 이 영 만
- 소 리 : 천 병 희
- 채 보 : 전 정 근

받는 소리

에헤 에헤 어하요

매기는 소리

봉죽을 받았다 봉죽을 받아
 도당할아버지한테 봉죽을 받아
 봉죽을 받았다 봉죽을 받아
 도당할머니한테 봉죽을 받아
 도당 신령님 귀히 보셔
 우리 배에다 도장원 주신다.

2) 용왕제 및 선상배치기

- 고 증 : 이 영 만
- 소 리 : 주 장 성
- 채 보 : 전 정 근

안산바다에 널린고기를
 우리에게 선민들 다잡아올리자

나갈적에는 중군부이요
 들어올때는 승전부이리네

배편 아주머니 정성으로 안산바다에
 도장원 할걸세

재산더미에 닳을 주고
 천량때미나 쟁기를 준다

연평바다에 널린 천량
 자치만 남기고 다잡아 들여라

철산바다 널린 재산
 우리 중선이 다잡아 올리세

3) 어부들의 행선

- 고 증 : 이 영 만
- 소 리 : 홍 봉 산
- 채 보 : 전 정 근

받는 소리

어디야, 어어어

어이 어기야, 에이야 어어

매기는 소리

어기야 디야차 어기기야
 빨리 저어라 어야디아

손길맞춰 빨리저어
 저배보다 먼저가세

화장놈아 돛올려라
 물때가 늦으면 큰일난다

안-산 바다에 널린 고기
 양주만 남기고 다잡아 보세

화장애야 밥지어라
 배고파서 노 못졌겠다

4) 농 요

가. 양산도(느린 동작)

- 고 증 : 이 영 만
- 선소리 : 김 수 옥
- 채 보 : 전 정 근

받는소리

에-에-에-헤야 에-헤야 에룩화 양산도야

매기는소리

어화 농부님네들 이내 말을 들소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또 있는가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어
 안-산 천지에 풍년이로다

나. 방아소리(첫머리)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어 렬 러 방 아 로 - 다
 얼 렬 러 방 아 로 - 다

작년에도 풍년이 들고서
 금년에도나 풍년이로다

어화 조사야 논두렁을 들렀느냐
 우리 모두 짐매러 가야겠다

이논 뱀이를 다 매며는
 다음 논으로 넘어를 갑시다

어화 농부님네들 이내 말을 들소
 시화연풍이리야 극래민안이라네

이논 뱀이를 다 댘으며는
 장구뱀이로나 넘어를 갑시다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녘엔 저달이 솟네



다. 방아소리(빠른 동작)



(메기는 소리)

어깨에 다-우 장을 메-고
 우장에 다-호 미를 걸-고
 농기를 들-고 농약을 치-며
 우리모-두 논매러 가-세

(받는 소리) (합창)

얼 얼 얼 방아- 로-다

받는소리

얼얼얼 방아로다

메기는소리

어깨에다 우장을 메고
 우장에다 호미를 걸고
 농기를 들고 농약을 치며
 우리모두 논매러 가세
 여보시게 농부님네들
 이내 말씀을 잘들어보소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니
 농사밖에 또 있으랴
 농사를 잘지어야
 태평성대를 맞을 것이다
 앞산에는 피꼬리 울고
 뒷산에는 백꾸기 우니
 풍년이로다 풍년이로다
 안산들녘엔 풍년이로다
 이논 뱀이를 다매고서
 장구뱀이로 들어를 가세

농사는 천하지대본이요
 우리모두 농사를 지읍시다
 장구뱀이를 다매고서
 새참이나 드십시다
 천지시간 만물지중에는
 사람밖에 또 있으랴
 금년 농사를 잘지어서
 나라 봉공하여 봅시다
 나라 봉공하고 나면
 부모님 봉양도 하여 봅시다
 부모 봉양을 하였으면
 처자 권속도 거느려 야-지
 앞산에는 꽃화자요
 뒷산에는 푸를 청자라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요
 나의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긴소리는 고만하고서
 잦은 소리로 넘쳐를 봅시다
 장구뱀이를 다매고서

뚝대뱀이를 들러를 가지
 벼 한포기라도 잘가꾸어야
 가을이 되면 추수하지
 추수한 곡식 거두어 들여
 창고에다 가득쌓고
 태평성대를 누리보자
 논도 다매고 해도지니
 우리모두 고만들 합시다
 모이여 - 본-데
 모-요

5) 만선귀향

- 고 증 : 이 영 만
- 소 리 : 김 석 근
- 채 보 : 전 정 근

집떠난지가 여러날 되어서
 처자식 생가기 간절하다
 빨리저어서 어서가자
 저달지면 물참된다
 날은 굶어 비바람 치는데
 도롱이 마져 한잎없네
 달은 밝구 명랑한데
 고향생각 절로난다
 아야범아 빨리저어라
 아침물때 늦어간다
 빨리 저어 집으로 가서
 부모처자들 만나보세

6) 대동축제

- 고 증 : 이 영 만
- 채 보 : 전 정 근

본당 성황님 귀히모셔
 우리 구지에 오색꽃 피었다
 배원네 아줌마 정성덕에
 일대동 만대동 도장원 했구나
 봉죽을 질렀다 봉죽을 질러
 이물 고물에 쌍봉죽을 질렀다
 삼국 임장군님
 우리배원 불러서 도장원 주었네
 오동축야 만시춘하니
 우리배 기죽에 오색꽃 피었다.

선머리켰다 선머리켰다
 우리배 사공이 선머리 쳤다.

조기 비늘로 갓을 쓰고 슬로다가 떡을 감고
 떡으로다 팔매를 쳤다

오동축야 달밝은데
 새우 잡기가 재미가 난다

안산 앞바다 재시가 되면
 우리배가 도장원 할결세

어영차 닳감아 싣고
 연평바다로 돈실러 간다

이놈의 바람은 왜안부느냐
 바람이 불어야 노를 안젓지

에이야 에이허
 손바닥이 다부르렀네

님을 두고 떠나는 나는
 가구싶어 가는줄 야나

돈실러 가네 돈실러 가네
 연평바다로 돈실러 가세

암해 수해 맞춰노니
 칠십발 그물이 두등실 낚뎠다

내골에는 이름을 놓고 남의 골에는 명을 놓자

축제소리

배원 아주머리 인심좋아
 냉수만 달래도 술을 퍼준다
 아랫등 웃등 다 제쳐놓고
 가운데 등에서 선머리 쳤단다
 한물거리에 천여동이요
 두물거리에 만여동이라
 연평바다 만시춘하니
 가지가지 봄빛이로다
 배주인 아줌마 거등보아라
 다리발 아래서 엉덩춤 춘다
 배원 아줌마 인심좋아
 막내딸 길러서 화장을 뵈단다
 앞바다 뒷바다 열두바다
 수물네바다 도장원일세
 나갔던 우리배 돌아오니
 안산 일경에 돈푼년 들었소
 우리배 상고배 다들러 대더니
 하라지에 백포장 들렀다
 우리배 도사공 거등춤 뵈라
 도장원했다고 거들먹 거린다.
 이번 행선에 돈벌었으니
 부모, 처자식 배블러 주세
 우리배는 고기푼년, 들판에 오곡푼년
 안산 천지엔 돈푼년 들었다
 에에에-에에어어 에이허야

4. 고증 및 전승자 명단

구분	성명	연령	주소 (비고)
감수	김천홍	83	국립국악원 원로
	전오장	59	안산원곡고교 교장
고증	이영만	78	인천시 문화재(고수) 안산5대거주
	주장성	71	조지동(배치기, 선주)
전승자	천병희	65	안산시 와동(배치기)
	김석근	69	안산시 조지동(배치기)
	홍봉산	61	안산시 원곡동(배치기)
	강순만	70	안산시 원곡동(배치기)
	장석준	71	안산시 와동(배치기)
농요고증	김수옥	65	신길동(선소리)
	전용안	89	원곡동, 8대 거주자
	전태룡	70	와동거주, 기악
	이천희	55	원곡동5대거주자

하사받은 와상농기

1. 전승지

안산시 와동

2. 유래 및 예설

안산 와상농기는 현 안산시 와동의 풍물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농기이다.

이 농기에 대한 유래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와동 원주민 노인들에게 구전된 설화를 들어보면, 조선조 이조말 고종 2년(1863년)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면서 왕가의 권위를 되찾고자 소실된 경복궁의 재건을 위하여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1865년)하고 전국적으로 부역 동원령을 내려 많은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경복궁 대역사에 참여하였다. 안산의 와상리 노역부대도 「와상노역부대



(瓦上勞役部隊)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대역사에 참여하여 경회루를 짓는 일을 했는데, 힘센 장사가 많았고 특히 풍물가락에 맞추어 열심히 일하여 다른 노역부대보다 두 배의 몫을 해내는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대원군은 크게 기뻐하여 치하하고 친필로 쓴 농기와 풍물을 하사하고 와상노역부대 전원에게 무명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그 후 와상리 주민들은 이 농기를 마을의 명예로 삼고 소중히 다루었으며 다른 마을의 농기보다 그 권위가 대단하였다.

와상리 두레가 이 농기를 앞세우고 가다가 다른 마을의 두레와 마주치면 다른 마을 두레는 농기를 흔들며 큰절을 했고(농기를 눕혀 땅을 두 번 쓸음) 와상리 농기는 기를 흔들지 않으며 반절로 답례했다.(농기로 땅을 한 번 쓸음) 그리고 다른 마을 두레는 와상리 두레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길을 비켜 기다려

야 했다.

와상리 농기는 6.25동란을 거치면서 풍물과 함께 유실되었고 지금의 농기는 마을 노인들의 고증을 받아 대원군에게서 하사받은 농기와 똑같이 만들어졌다.

3. 구성 및 줄거리

- 민속놀이를 선두로 전원 등장하여 인사
- 지경꾼들이 풍물소리에 맞추어 지경소리를 하며 지경을 다진다.
- 목도꾼들이 궁궐을 지을 자재를 운반한다.
- 수많은 노역자들에 의해 궁궐(경회루)이 등장
- 대원군이 관속을 거느리고 행차하여 와상리 노역자들을 치하하려고 농기와 풍물등을 하사한다.



- 농기를 하사받고 풍물놀이가 펼쳐지며 노역부대원들은 농기에 예를 표한다.

4. 출연 인원

- 총지휘
유천형(안산문화원장)
- 고 증
김천홍 : 풍물가락 고증(국악협회 안산지회 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제39호)
- 장성두 : 농기 및 놀이 고증(와동원주민)
- 연출 및 구성
박해일 : 국악협회 안산지회 부지회장, 국악 재담가)
- 조연출
천병희 : 국악협회 안산지회 부지회장, 경기농악 기능보유자)
- 기 획
이현우 : 안산문화원사무국장)
- 지 도
주장성(국악협회 안산지회)
차도열(국악협회 안산지회)
최종진(국악협회 안산지회)
김진호(협성상고 교사)
정희수(협성상고 교사)

동작리 두레놀이

1. 전승지

안산시 동작리

2. 유 래

안산 동작리(일명·방죽말) 두레는 마을에 재인(才人)들이 많이 살아 조선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았다. 경복궁 재건 당시 대원군에게서 친필로 쓴 농기를 하사받은 뒤로는 다른 두레로부터 양반기, 또는 선생두레로 불렸다.

한일합방 이후 위축되기 시작했던 두레의 풍물놀이는 일제말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으나 해방 이후 다시 성행하여 1950년대에는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이영수(안산출신, 83세, 인천광역시 중요



무형문화제 1호)선생, 고(故) 전대용씨 등이 상쇠를 치고 장석준(동작리 원주민, 76세)선생이 부쇠를 쳤으며 천병희(동작리 원주민, 70세)선생이 상벽구로 활동하며 이승만대통령 생일 축하공연에 연 3년을 참석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차츰 쇠락해오던 동작리 두레는, 1979년부터 시작된 안산 신도시 개발로 50여 호가 살던 마을은 완전히 폐동(廢洞)되었고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주하였으며 두레는 사실상 해체되었었다.

1986년 박해일(국악인, 73세)선생에 의해 발굴 재현되기 시작한 동작리 두레놀이, 일부 고증되지 못했던 부분을 1995년 4월에 1950년대 상쇠였던 이영수 선생이 옛가락을 고증하고, 당시 상벽구였던 천병희 선생에 의해 놀이 구성이 고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영상, 박계순, 남기문, 김기복 선생 등의 도움을 받아 안산문화원에서 채록, 정리, 구성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가락과 판굿은 인근 지역의 옷다리 풍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놀이마당에 입장하여 인사굿 후 바로 마당밧기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에 마당밧이라는 가락을 치며 오방진을 치는데(연회시간 제한시는 3회 정도) 상쇠의 '개개갱 갱갱' '갯지 갯지 갱갱'의 쇳소리를 뒷밧이가 받아친다.

마지막 진에서 몰아밧이를 친 후 풀고 나오며 길고낙(길군악 7채)을 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이를 재현하였다.

1) 판 굿

마당밧기 이후 돌림벽구, 짝저기 굿, 당산벌림, 쌍줄백이, 개인놀음, 명석말이, 사통백이, 가새치기, 마당씻이(열두발 상모) 등의 순서로 놀이가 진행된다.

2) 가 락

가락 이름은 동작리 두레 사람들이 쓰던 용어로서 더드래기(느린삼채, 빠른삼채), 마당밧이, 길고낙(칠채), 몰아밧이(자진가락, 일채), 넓치기(느린육채), 좁치기(빠른육채), 마당쇠가락, 우물가락(샘굿), 짝적이가락, 연풍대, 허튼가락, 짚지패가락(굿거리), 새미만장단(무등가락)등이 있다.

4. 출연인원

1) 총지휘

유천형 : 안산문화원장

2) 발 굴

박해일 : 국악재담가

3) 고 증

• 가락고증

이영수 : 안산출신, 인천시 국악협회

• 놀이고증

천병희 : 동작리 원주민, 안산국악협회

4) 고증·조연

이영상 : 한국국악협회

박계순 : 남사당 대표

남기문 : 남사당

김기복 : 안성 풍물놀이단장

7) 놀이패

5) 채록·구성

이현우(향토사가)

6) 지 도

주장성 : 안산국악협회

천병희 : 안산국악협회

차도열 : 안산국악협회

정희수 :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김진호 :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조성엽 : 화랑국민학교

이현우 : 안산문화원

구 분	성 명
쇠	천병희, 박종단, 김범태, 한일희
장	유재영, 임창호, 강경하, 박제모
장 구	강진희, 임선미, 장운선, 안은옥, 한재광 김진호, 김현숙, 정기중
북	황귀정, 조은광, 강민선, 손예련, 장운경 박명성, 안선정, 도근희
호적(태평소)	강순만
백구(상모)	정상민, 강영진, 함용철, 신소영, 신진영 김현정, 조하나, 강지석, 김태영, 윤주영 이중운, 고석범, 정홍연, 황귀정, 정용철
무 등	장지홍, 노윤정, 박성숙, 김은경, 김현숙 심민화, 오수정, 이윤경
무 등	정용철, 김형주, 최용제, 정부교, 김연수
잡색(양반)	주장성
기 수	이상우, 이경봉, 정필선, 이영진, 당병주 조근형, 정 찬, 김상진, 이종오, 문태균 배한희



